

소박한 일상에서 건져내는 휴머니즘 인간의 보편적 서정 담아낸 수필집

— 「인간 속의 흔적」 펴낸 허세욱 교수

이 책 그 사람

현대인의 浮動性을 운위할 때, 그것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공간적 떠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흔히 '자아'라고 일컬어지는 정신적 거주지를 너무 자주 이탈하거나 혹은 그 자체가 자신의 내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외부의 안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더 적합한 말일 것이다.

고려대 중문과 허세욱 교수(56)는 바로 이 자신에게로의 귀향방법으로 휴머니즘을 꼽는다. 그는 휴머니즘을 "인간본성대로의 사고와 정서를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발현을 방해하는 온갖 '장식물'들이다. 현대사회의 크고 작은 '형식'들로 인해 인간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차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수필집 「인간 속의 흔적」(보성사)은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총서명에 걸맞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중년이 구체적 일상에서 인간본연의 '온기'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알려진대로 그는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文名이 높은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대만대 대학원 재학시인 61년, 중문시와 수필이 그곳의 정평있는 문학지에 추천되어 '국외등단'한 그는,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각각 3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상재했다. 또한 중문학 권위자로서 중요한 연구서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수필집의 머리말에는 그는 "문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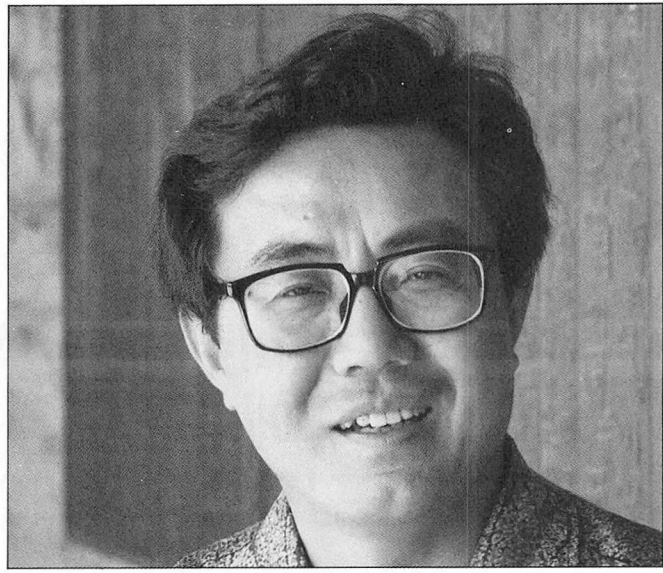
직감이나 예감에 맡기기보다는 체험과 정감으로 그 탄력을 완회시키고, 현실을 굴절하는 프리즘이나 현실의 아픔을 찌르는 비수보다는 솔잎 화롯불을 다독거리는 불주걱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문학관은 그의 연륜이 가져다준 '부드러움'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중문학을 공부하면서 얻게된 하나의 결론, 바로 '서정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고답적으로 들리는 이 말의 典據로서 그는 「詩經」을 든다. 3천여년 전의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經'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그 소재는 다양할지라도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휴머니즘에 맞닿아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필집 곳곳에 등장하는 노모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중국·미국으로 이어지는 '떠돌이' 생활에서 반추되는 조국에 대한 새삼스런 애정이 사실 별스런 감정은 아니나, 그 계기가 되는 소박한 일상이 오히려 독자에게는 설득력있게 다가오게 된다.

중국본토에서는 곧, 국내인으로선 최초로 허교수의 중문수필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수시로 국경은 넘나드는 그는 이제 "이중언어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진정한 방랑의 여유를 터득한 이상, 향시 돌아올 장소로서의 고향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힌다.

— 정소연 기자



한국어특수사전 편찬의 개척적 성과 「유의어반의어사전」이은 두번째 역작

— 「반대말사전」 펴낸 김광해 교수

이 책 그 사람

항상 '말'의 부자유를 느낀다.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에 꼭 들어맞는 '적절한

말'을 찾아내는 일은 늘 어렵다. 머릿속에서는 명암과 색깔조차 달리하며 떠오르는 분명한 하나의 세계도 막상 말이나 글로 형상화하려면 김빠진 무엇마냥 맛도 풍미도 잃어버린 그냥 그런 게 돼온다. 이 싱거운 결과는 심각할 정도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때마다 '사전'을 꺼내든다.

"어휘는 말하는 사람의 자산이고 세계의 전부입니다." 김광해(39·강릉대 국문과) 교수는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이다'고 갈파한 언어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한 말로 위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이에게 어휘부족에 세계의 편협함이란 두 개의 증병을 동시에 앓고 있음을 문득 일깨운다.

그가 87년 펴낸 「유의어반의어사전」의 반의어 부분을 보완, 최근 「반대말사전」(국학자료원)을 펴냈다. 먼저것이 비슷한 말에 치중한 나머지 반의어 부분이 너무 소홀해 그 부끄러움을 빨리 만회할 요량으로 작업을 서둘러 끝냈다 한다.

"반대말들이란 한 언어에서 확고부동하게 고정되어 있는 단어들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면이 중요한 단어들 간의 관계이지요. 이것이 반대말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참고하다보면 어떤 특정한 반대말의 짝에 관해서는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는 특히 아동들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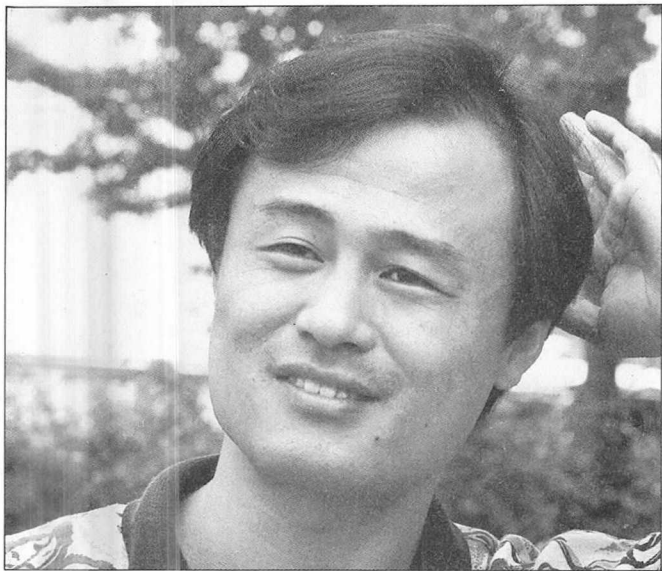
반대말의 짝들을 함께 습득케 함으로써 어휘량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킬 뿐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의 하나로 명확한 개념의 확립을 위한 도구로 반대말습득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 자신이 더 평가하고 싶은 사전은 「유의어…」 쪽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반대말…」이 쉽게 나올 수 있었지요."

이 사전은 국내처음 간행된 비슷한말 사전으로 그 목적은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떠오른 어휘 외에 그보다 더 적합한 다른 어휘가 또 있을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내용을 가장 적절히 전달해주는 어휘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그가 욕심내는 다음 작업은 「의미변별사전」이다. 가령, '가운데' '복판' '중앙' 등의 유의어가 가지는 섬세한 의미차이를 좋은 용례를 들어가며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개념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영어나 불어 등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맨처음 놀라게 되는 사실 하나가 별의별 사전이 입맛대로 다 갖춰져 있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의 사전을 비교해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문의 기초적인 분야가 공동적으로 지니는 빈곤성의 하나를 확인하는 일이어서 씁쓸하다.

"처음이어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를 시작으로 국가나 전문기관의 주도하에 본격적이고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교수의 말은 비단 그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국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 정혜욱 기자



작가 자신의 체험이 문학적 자양분 日記가 小説이 된 불행한 시절 그려

— 첫 창작집 「노을은 다시 뜨는가」 펴낸 구호서씨

이 책 그 사람

무슨 근거있는 학설에 힘입고 있는 논리는 아니지만 한 작가가 자신의 고향 '山川'이 그리 빼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작가로서의 운명을 스스로 예견하고 있는 것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인다.

그것은 80년대에 양산된 대하소설을 읽으면서 자신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품게 되었던 신인작가로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원체 속에 그러한 대하적 경험이 갈무리되어있나 곰삭혀 보기에 그러하다.

최근 자신의 첫 창작집 「노을은 다시 뜨는가」(도서출판판)를 상재한 구호서씨(34)는, 고향인 강화도의 別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데서 80년대를 줄곧 「기 죽으면서」 살아왔다.

“고향 뒷산이 크지 않다는 점때문에 제가 ‘큰 소설’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에 시달린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농반진반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선배작가들의 문학적 성과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저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적 세계를 우뚝 세우고 싶다는, 너무 큰 욕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게 된 푸념이죠.”

역시 별립산의 크기가 작아서 일까. 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마디」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구씨는 결국 그 시절에 3천매 분량의 장편소설 하나를 탈고했을 뿐 줄곧 ‘안타성’ 작품만을, 아 화려했던 ‘장외흥련’에의 유혹이여, 발표했을 뿐이다.

표제작인 「노을은 다시 뜨는가」를 비롯 10여편의 중단편이 실린 이번 작품집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공무도하가.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강을 건너다 죽고마는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고대가요를 제목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울림의 폭을 크게 한 이 작품은 실화다.

“민청년”이라는 재야단체에서 활약했던 박형희라는 청년운동가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작품내용에서도 등장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학적 장치도 숨겨 놓지 않은 작품입니다.”

작품발표 당시 ‘작가의 말’에서도 밝혔듯이 “일기가 소설이 될 수 있었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불행했던 시절,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구씨는 “이번 작품집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이 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

90년대라는 새로운 연대에도 구호서씨는 여전히 별립산이 작다는 콤플렉스에 빠져 있을까. 그는, 아니더라고 답한다.

“대하소설에 대한 욕심이 다분히 문단유행에 대한 추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작가가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부분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천착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은 셈이죠.” 한국문학이라는 지형도에 ‘강화도’만한 크기와 무게로 자리잡겠다는 구씨는, 그간 우리 소설이 역사나 사회적인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왔다면서 앞으로 존재론적 시각에서 작품을 쓰고자 한다며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권우 기자



미개척 '우주법' 분야의 포괄적 입문서 우주를 향한 진보적 개발의지 역설

— 「우주법」 펴낸 박원화씨

이 책 그 사람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밀집된 고층아파트촌에서 일본TV를 시청하기 위해 설치한

‘파라볼라안테나’를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두고 ‘문화적 침투’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게 일고는 있지만, 그 수효는 늘어만 가고 있어 국경을 아랑곳 않는 방송파의 ‘월경’, 즉 전파침투(Spill over)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외무부 국제지구과장 박원화씨가 펴낸 「우주법」(명지출판사)은 바로 그러한 통신위성, 방송전파의 침투와 우주의 군축문제 등 우주법의 전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어서 학계는 물론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미개척분야라 할 우주법에 대한 틀을 갖춘 최초의 소개서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서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된 그가 인기없는(?) 국제법 중에서도 불모지인 항공·우주법에 담벼들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에서였다.

“83년 소련전투기에 의해 KAL기가 격추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 사건처리의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UN안보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전문적인 법의 원용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는 서방국가대표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정확한 용어의 선정, 배경 등의 지식없는 효율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85년에 캐나다 McGill대학에서 2년간 항공·우주법을 공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1956년부터 UN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우주법은 1967년에 체결된 ‘외기권조약’과 1968년의 우주미아나 기타 사고시의 구조문제를 협의한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 5가지 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구정지궤도(적도상공 36000km의 인공위성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받고서도 통신위성 하나 발사하지 못하는 산업기술의 부진보다는 국민적 수용자세의 잘못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낙후성을 초래했다고 보는 그는 부존자원이 절대부족한 우리의 경우 무한한 자원이 숨겨져 있는 우주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개발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가, 전문화의 부재라고 봅니다. 작은 무역분쟁에도 외국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전문가 부족현상이 한시바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화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국제법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주법에 이르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80년대가 자동차산업의 전성기였고, 90년대가 항공·통신산업이 활성화된 시기였다면 2천년대는 우주산업인 통신위성, 기후관측위성, 방송위성 등의 산업이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하는 그는 앞으로 국제통신협력분야에 관한 책을 낼 계획이라고.

— 최태원 기자